

루쉰과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근대 주체 탐색*

— ‘나래주의(拿來主義)’와 ‘자기본위(自己本位)’의 ‘주체 세우기(立人)’ 양상

고 점 북**

<목 차>

1. 들어가며
2. 자유와 개성, 근대적 주체의 조건
3. 죄의식, 근대 윤리적 주체의 조건
4. 나오며

1. 들어가며

1902년 스물둘의 나이에 일본 유학을 떠난 루쉰(魯迅)은 1906년 문예에 종사하기로 결심하고 의학 공부를 포기한다. 문예에 종사하기로 결심한 그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잡지 《新生》의 발간(1907년 여름)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잡지 발간이 좌절되자 루쉰은 동유럽과 러시아 등 약소민족의 문학에 심취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 무렵 루쉰이 동시대 일본의 작가들 가운데 유독 소세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1908년 루쉰은 소세키가 기거했던 곳으로 이주했으며, 그의 작품을 독파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망하기까지 10년 정도 살았던 상하이에서는 소세키 전집을 구입하기도 했다.¹⁾ 1933년

* 본고는 2019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gaodf@korea.ac.kr)

1) 히야마 히사오 저, 정선태 역, 《동양적 근대의 창출 - 루쉰과 소세키》(서울: 소명출판, 2000, 22-23쪽) 참고.

에 쓴 <我怎麼做起小說來>에서 루쉰은 일본 유학 시기 가장 좋아했던 작가로 러시아의 고골, 폴란드의 시엔키에비치(Sienkiewicz)와 함께 나쓰메 소세키, 모리 오가이(森鷗外)를 들고 있다.²⁾ 周作人 역시 <關於魯迅之二>에서 루쉰이 도쿄에 있을 때,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와 《우미인초(虞美人草)》를 애독했다고 말한다. 소세키에 대한 루쉰의 관심이 흥미로운 것은 그의 초기 문예론(혹은 문화론)이라고 할 수 있는 글들의 발표 시점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中國地質略論>(1903년 10월 《浙江潮》 제8기)을 제외하고, <人之歷史>(《河南》 월간 창간호), <魔羅詩力說>(1908년 《하남》 제2, 3호), <科學史教編>(1908년 6월 《하남》 제5호), <文化偏至論>(1908년 8월 《하남》 제7호), <破惡聲論>(1908년 8월 5일 《하남》 제7호)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이쉽게도 루쉰 자신은 소세키 문학을 좋아한 이유에 관하여 일절 말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그의 관심의 소재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당시의 루쉰이 서양의 모방에 지나지 않았던 일본의 자연주의 문학의 성행(盛行)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이와 대립하는 위치에 있었던 소세키의 문학에 끌렸다는 사실에는 어떤 적잖은 이유가 숨어 있음에 틀림이 없다.”³⁾ 히야마 히사오의 언급에서 우선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루쉰이 동유럽 약소국의 문학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의 연장선에서 문학적 비주류에 대한 관심이다. 당시 일본의 문학적 경향은 서양 주류 문학의 모방이었으며, 이는 다시 문명사적 대세였던 서양적 근대화, 즉 서양의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려고 했던 일본의 정신사적 전환의 모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학적 대세에 대한 반감과 비판을 루쉰은 소세키에게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이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제국으로 거듭난 일본의 지식인이었던 소세키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된 계기는 영국 유학이었다. 그가 영국 유학에서 경험했던

2) 魯迅, 《魯迅全集》 4권(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년 제1版, 511쪽) 참고.

3) 히야마 히사오 저, 정선태 역, 위의 책, 23쪽.

이질감과 열등감은 반식민지의 지식인이었던 루쉰이 일본 유학 기간에 경험했던 그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질감과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선택은 문학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세키의 문학은 서구근대문명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일본의 근대문명과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루쉰의 문학은 전통문명에 대한 비판과 중국인의 정신 개조를 위한 무기가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언급은 양자의 문학이 갖는 거시적 의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대다수 관련 연구가 이를 지적하고 있다.⁴⁾

본고 역시 이와 같은 기존의 성과에 동의하며, 여기에서는 양자가 문예(혹은 문학)를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바를 근대 주체 탐색이라는 관점에서 근대적 주체의 존재론적 양상과 윤리적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얼핏 상이하게 보이는 루쉰의 ‘나래주의(가져오기주의)’와 소세키의 ‘자기본위’의 의미를 연계시켜 논구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본고는 소세키와 루쉰의 존재론적 사유가 지닌 특징에 주목하여 근대적 주체의 조건과 존재론적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양자의 존재론적 양상에 대한 탐구임과 동시에,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근대적 주체의 조건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소세키에 대한 루쉰의 관심을 문헌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고는 양자의 일부 글에서 사유(思惟)의 유사점을 찾는데 집중할 것이다.

4) 이와 같은 연구 결과물로는 앞서 언급한 히야마 히사오의 저작과 정선태의 《심연을 탐사하는 고래의 눈》(서울: 소명출판, 2003), 전수진·이경규의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와 노신(魯迅)의 근대문화 수용에 대한 의식 비교>(한국일본근대학회, 《日本近代學研究》 제56집, 2017), 안영희의 <동아시아의 근대와 근대 지식인 - 나쓰메 소세키, 루쉰, 이광수>(일본어문학회, 《일본어문학》 제71집, 2015) 등이 있다.

2. 자유와 개성, 근대적 주체의 조건

자유와 개성을 양자가 추구한 근대적 주체의 조건으로 상정한 이유는 두 사람의 존재론적 불안과 고독의 양상을 탐구하기 위함이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루쉰과 소세키의 개인사와 연관된다. 다음으로 양자 모두 당시 문단에서 소수자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발 근대국가 일본의 지식인 소세키와 전근대 국가 중국의 지식인이었던 루쉰은 근대화의 수준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공히 문명사적 전환기를 겪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루쉰은 몰락한 집안의 장자였으며, 집안의 몰락 과정에서 인정세대의 쓴맛을 경험하고 모멸감을 느꼈다. 열세 살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과거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면서 루쉰은 잠시 친척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 당시 그는 ‘밥 빌어 먹는 놈’으로 불리기도 했다.⁵⁾ “소세키는 메이지유신으로 몰락한 도쿄의 나누지(名主) 집안의 5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후처 소생인데다 아버지가 50이 넘었고 어머니도 40이 넘어서 태어난 터라 ‘수치스런 아이’, ‘쓸데없이 아이’ 또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모양이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는 요츠야에 있는 고물상 집의 수양아들이 된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고물상 집에서 고물 취급을 받는다.”⁶⁾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루쉰과 소세키의 모멸감과 불안감은 새로운 사람과 지식을 찾아 떠난 곳에서도 유사하다.

소세키는 “불안을 안고 대학을 졸업하고, 똑같은 불안을 안고 마쓰야마에서 구마모토로 이사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불안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결국 외국

5) 루쉰, <러시아 역본 《아큐Q정전》 서언 및 저자의 자술 약전>,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제9권(서울: 그린비, 2016, 129쪽) 참고.

6) 정선태, 《심연을 탐사하는 고래의 눈》(서울: 소명출판, 2003, 122쪽). 이어 정선태는 1905년 39세의 나이에 첫 작품을 창작한 소세키가 1916년 12월 사망하기까지 불과 10여년 사이에 열 편이 넘는 장편과《열흘 밤 꿈》등의 단편을 창작한 열정의 근원으로 “하나 는 양자생활과 유학생생활에서 체득한 지독한 열등감 혹은 모멸감이며 다른 하나는 열등감의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강렬한 사명감이다”고 말한다.(정선태, 위의 책, 124쪽)

까지 건너갔다.”⁷⁾ 귀국 후에는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에도 나가고, 대학교에도 출강했다. 후에는 돈이 부족해서 사립학교에서도 수업을 맡았다.⁸⁾ 루쉰의 삶 역시 지속적인 유동(流動), 즉 불안의 연속이었다. 18세 때 난징(南京)으로, 22세 때 일본으로, 그리고 1909년 귀국하여 고향 샤오싱(紹興)과 항저우(杭州)에서 생계를 위해 교편을 잡거나 외국 소설을 번역했다. 소세키가 영국 유학 시기에 문학이란 무엇일까라는 개념을 자력으로 만들어내는 것 외에 자신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⁹⁾, 루쉰은 일본 유학 시기에 의학(醫學)에서 문학으로 전향하여 위기에 빠진 중국을 구하기 위해 중국인의 정신 개조를 도모했다.

젊은 시절 소세키와 루쉰이 가졌던 불안은 미래와 운명의 불확실성 때문에 야기된 것임에 틀림없으며, 이는 양자를 넘어서 모든 존재가 마주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실존 자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의 방향을 설정하고 매진하기 나름이지만, 소세키와 루쉰이 특별한 것은 모든 존재의 시공을 관통하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때의 물음은 존재의 불안과 치욕의 경험을 상쇄시켜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으로 나아가는 물음이며,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양자는 문학에서 찾고 있다. ‘문학’이라는 개념을 자력으로 구축하지 않는 이상 자신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소세키의 자각은 문예를 통해 중국인의 정신을 개조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루쉰의 자각과 흡사하다. 소세키는 ‘자기분위’라는 언어를 손에 쥔 뒤부터 강해졌으며, 그 네 글자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불안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한다.¹⁰⁾ ‘자기분위’라는 네 글자는 소세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규정하는 언어로 자리매김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루쉰의 경우에는 ‘입인(立人)’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 양자의 문학세계는 우선적으로 ‘입인’이라는 두 글자를 위한

7)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나의 개인주의 외》(서울: 책세상, 2011년 초판3쇄, 51쪽)

8)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55쪽 참고.

9)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51쪽 참고.

10)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54쪽.

고투일 것이라는 추론이다.

개인사적인 면에서 찾아지는 유사점은 정신적인 면에서도 찾아진다. 약소국 출신이라며 본국의 학생들에게 받는 멸시, 유학생들 간의 알력 혹은 계층적 위화감, 생계 문제 등이 야기한 모멸감과 열등감은 소세키와 루쉰에게 공통적이다. 영국 도착 후 유학할 곳을 찾던 소세키는 지인의 초청으로 방문한 캠브리지에서 동료 유학생들에게서 계층적 위화감을 느낀다.¹¹⁾ 양자가 개인사적인 차원에서 느낀 위화감이나 열등감을 사회사적(혹은 문명사적) 의미로 확장해보면 후발 근대국가 일본과 전근대 국가 중국이 시야에 잡힌다. 그런 면에서 소세키와 루쉰이 느낀 이질감, 위화감, 열등감, 모멸감 등과 같은 일견 부정적인 어휘들은 근대적 주체로 서고자 했던 양자의 존재론적 양상을 설명해준다고도 할 수 있다. 소세키와 루쉰이 경험한 불안과 고독이 개인사적으로나 사회사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그것의 해결책으로 문학(혹은 문예)에 대한 독자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양자의 문학은 어떤 유평나 문학적 권력, 문학에 대한 근대적 척도마저 거부하는 문학적 소수자였다. 소세키는 자기분위를 통해 당시 일본 문단의 주류였던 자연주의 등과 같은 서구 문예사조를 부정했으며, 루쉰 역시 당시 중국의 사상적·문학적 경향과는 거리를 두었다. 영국 유학 시기 소세키가 자신을 구제할 방법으로 제시했던 '자기분위'의 세계관과 흡사한 주체 세우기 방식이 일본 유학 시기 루쉰의 글에서 찾아진다.

구미의 열강이 모두 물질과 다수로써 세계에 빛을 드리우고 있는 것은 그 근처에 인간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물질이나 다수는 다만 말단적인 현상일 뿐이며, 근원은 깊어 통찰하기 어렵고 화려한 꽃은 드러나게 마련이어서 쉽게 눈에 띄는 법이다. 이 때문에 천지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열강과 각축을 벌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확립하는 일이다. 사람이 확립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사람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반드시 개성을 존중하고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데에는 한 세대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본래 물질을 숭상하고 천재를 멸시해 왔으므로 선왕의

11) 나즈메 소세키, 황지현 옮김, <《문학론》서>, 《나즈메 소세키 문학예술론》(서울: 소명출판, 2004, 30-31쪽) 참고.

은택은 나날이 없어지고 외부의 압력을 받게 되면서 마침내 무기력해져 자기조차 보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하찮은 재주를 가진 교활한 무리들이 크게 부르짖고 과장하면서 물질로써 말살하고 다수로써 구속하여 개인의 개성을 남김없이 박탈하고 있다.¹²⁾

루쉰이 유학을 간 1902년은 일본에서 니체열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였다. 이토 도라마루(伊藤虎丸)는 이로부터 루쉰이 니체의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인성과 초인 관념에서 강력한 주체를 발견했을 것으로 추측한다.¹³⁾ 상기 인용에서 루쉰은 사람을 확립하는 일(立人), 즉 강력한 주체는 개성의 존중과 정신의 발양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구미 열강(혹은 근대명명)의 상징과도 같은 물질과 다수는 개인의 개성을 박탈할 뿐이며, “인간은 자기 개성을 발휘함으로써 관념적인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자기개성이야말로 조물주이다. …… 그 의미인즉, 한 개인의 사상과 행동은 반드시 자기를 중추로 삼고 자기를 궁극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자아 개성을 확립하여 절대적인 자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또 다른 유학 시기 글인 <破惡聲論>에서는 “자신이 자신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정체(己)를 가지게 된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정체를 가지게 되면 사회의 큰 각성은 조만간 달성될 것이다”¹⁵⁾고 쓰고 있다.

‘자기를 중추로 삼고 자기를 궁극으로 삼아야 한다’는 루쉰의 언급은 우선적으로 니체의 초인 관념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자기본위’의 문학관을 내세웠던 소세키의 그것과도 부합된다. “자기본위(自己本位)란 압도적인 서양문화 앞에 움츠리고 있던 소세키가 ‘문예에 대한 자신의 입각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견고히 한다기보다는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절박한 입장이었다.”¹⁶⁾ 소세키는 개인의 자유는 개성의 발전에 지극히 필요한 것이고, 개성의

12) 루쉰, 홍석표 역, <문화편지론>, 《무덤》(서울: 선학사, 2001, 85쪽), 밑줄은 본고.

13) 鄧傳俊, <魯迅和夏目漱石的個人主義>, 《山東社會科學》(2007년 제8기, 총제144기, 94쪽) 참고. 원래는 伊藤虎丸, 孫猛等譯, 《魯迅, 創造社與日本文學》(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14) 루쉰, 홍석표 역, <문화편지론>, 위의 책, 74쪽.

15) 루쉰, 홍석표 역, <과악성론>, 위의 책, 434쪽.

발전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말한다.¹⁷⁾ 그러면서 “권력이나 금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개성을 과도하게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타인을 그 방면으로 유인하거나 할 때 매우 편리한 도구”¹⁸⁾라고 기술한다. 다시 말해 표현은 다르지만 상기한 글에서 루쉰이 말하는 물질과 다수처럼 권력이나 금력은 타인의 개성을 망가뜨림으로써 타자의 주체성을 말할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세키는 “타인에게 영향이 없는 한, 나는 왼쪽을 향하고 여러분은 오른쪽을 향해도 지장 없을 정도의 자유는 자신도 견지해야 하고 타인에게도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말한 개인주의”¹⁹⁾라고 쓴다. 루쉰과 소세키의 불안을 야기한 개인사적 사실 외에도 당시의 주류관념에 합류하지 않으려는 주관적 의지 역시 양자의 불안과 고독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오늘날 귀하게 여기고 기대해야 할 사람은 대중들의 떠들썩함에 동조하지 않고 홀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선비이다. 그는 그윽하게 숨겨져 있는 것을 통찰하고 문명을 비평하면서 망령되고 미혹된 무리와 그 시비를 함께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향해 매진한다.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하여도 그것에 고무되지 않고, 온 세상이 그를 헐뜯어도 그것 때문에 나아감이 막히지 않는다. 자기를 따르는 자가 있으면 미래를 맡긴다. 설령 자기를 비웃고 욕하며 세상에서 고립시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²⁰⁾

<문화편지론>을 비롯한 루쉰의 초기 글들은 주로 물질의 배척과 개인의 존중을 중시한다. 물질과 다수의 관념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였지만, 루쉰은 그것들은 서양문명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함부로 가져다 중국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²¹⁾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재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면 지난 일

16) 히야마 히사오 저, 정선태 역, 위의 책, 203-204쪽.

17)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67쪽 참고.

18)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55쪽.

19)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67쪽.

20) 루쉰, 홍석표 역, <파악성론>, 위의 책, 438쪽, 밑줄은 본고.

21) 루쉰, 홍석표 역, <문화편지론>, 위의 책, 71-72쪽 참고.

을 고려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물질을 배척하여 정신을 발양시키고 개인에 맡기고 다수를 배격해야 마땅하다.”²²⁾ ‘고독한 전사(戰士)’를 상기시키는 루쉰의 상기 글은 “현대라는 시대만큼 영웅주의가 결핍된 시대가 없고, 또 현대의 문학만큼 영웅주의를 발양하지 않는 문학은 거의 없을 것”²³⁾이라는 소세키의 언급과 맞닿아 있다.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하여도 그것에 고무되지 않고, 온 세상이 그를 헐뜯어도 그것 때문에 나아감이 막히지 않는’ 선비와 같은 개인적 영웅은 현대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런 영웅을 형상화하는 문예는 이미 시대적 조류에서 뒤쳐져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을 소세키는 <문예의 철학적 기초>라는 글에서 밝히고 있는데, 요점은 다음과 같다. 현대 문예는 眞이라는 한 글자를 이상으로 하는 탐정문학 같으며, 이는 현대가 과학과 이성의 시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곧이어 그는 현대사회는 과학과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眞의 가치에 편중된 결과 善과 美, 숭고라는 문예의 또 다른 가치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서구의 자연주의를 일본에 도입하려는 주장은 “眞이라는 하나의 이상에 지나치게 편중하기 때문에 발생한 다소 병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한다.²⁴⁾

이처럼 “다른 나라의 강대함에 놀라서 전율하듯 스스로를 위태롭게 여긴 나머지 실업을 부흥하고 군대를 진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매일같이 입으로 떠들 어대는”²⁵⁾ 중국의 주류 사상 가운데 개인과 정신의 가치를 주장한 루쉰의 철학이나, 眞의 가치에 편중된 문단의 주류보다 자기본위를 통한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우선했던 소세키의 문예관은 모두 소수자의 목소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명의 위기와 현대인의 고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

22) 루쉰, 홍석표 역, <문화편지론>, 위의 책, 64쪽.

23) 나쓰메 소세키 지음, 황지현 옮김, <문예의 철학적 기초>, 위의 책, 119쪽.

24) 나쓰메 소세키 지음, 황지현 옮김, <문예의 철학적 기초>, 위의 책, 119-132쪽 참고.

25) 루쉰, 홍석표 역, <과학사교편>, 위의 책, 53쪽.

서양의 조류로 그 흐름을 건너는 일본인은 서양인이 아니므로 새로운 흐름이 밀려올 때마다 자신이 그 속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어렵게 지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흐름은 여하간, 방금 겨우겨우 탈각한 진부한 흐름의 특질이나 진상(眞相) 등도 분별할 틈 없이 이제 포기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밥상에 앉아 접시의 음식을 다 맛보기는커녕 원래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기도 전에 벌써 밥상을 물리고 새로운 상을 진열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화의 영향을 받은 국민은 어딘가 공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딘가 불만과 불안의 상념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²⁶⁾

소세키는 현대 일본인의 정신적 불안, 공허감은 개화의 결과라고 말한다. 불안과 공허감을 낳는 원인은 일본사회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흐름이 아닌 서양의 조류에 더부살이를 하게 된 때문이다. 새로운 조류의 진면모가 무엇인지 분별할 틈도 없이 또 다시 새로운 조류가 밀려드는 식의 개화는 일본인들을 만성적인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만든다. 흔히 말하는 내발적 근대화가 아닌 외발적 근대화가 야기한 일본인의 불안과 고독은 필연적이다. ‘자기분위’라는 소세키의 ‘개인주의는 타인을 목표로 향배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시비를 규명하고 거취를 확정하는 주의니까 어떤 경우에는 홀로 외톨이가 되어 쓸쓸한 기분이 든다.’²⁷⁾ ‘개인주의라는 개념은 결단코 속인이 생각하듯이 국가에 위협을 끼치는 행위나 무엇이 아니라, 타인을 존경함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존경한다는 것이다. 더욱 알기 쉽게 말하면 당파심이 없고 옹고 그름이 있는 주의이다. 봉당을 결성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권력이나 금력을 위해 맹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주의인 것이다. 따라서 그 이면에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쓸쓸함도 잠복해 있다.’²⁸⁾ ‘자기분위’에 근거한 소세키의 개인주의에는 항상 고독의 위험성이 잠복되어 있다. 거기에는 근대 일본인들이 서양의 조류에 더부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개인주의가 야기하는 고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세키는 어디까지나 근대적인 삶의 테두리 안에서 근대 일본인의 고뇌와 방황을 그려낸다. 소세키에 따르자면 그

26)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현대 일본의 개화>, 위의 책, 103쪽.

27)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70쪽.

28)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68쪽.

러한 고뇌와 방황이야말로, 그것이 비극일지언정, 근대인의 운명이며 이 운명을 포기할 때 빛에 눈 멀거나 암흑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²⁹⁾

한편 ‘자기본위’와 ‘입인’을 위한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고뇌와 방황을 야기한 문명에 대한 해부와 그러한 문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조건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루쉰은 인간이 관념적인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기개성을 발휘하는 것이며, 개성을 발휘하는 자신만이 자유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개인의 자유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유는 힘으로써 얻게 되는데, 그 힘은 바로 개인에게 있고, 또한 그것은 개인의 자산이면서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만일 외부 압력이 가해진다면 그것이 군주에서 나왔든 또는 대중에서 나왔든 관계없이 다 전제이다.”³⁰⁾ 전제 혹은 문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루쉰은 오직 개인만이 소유하고 있는 자유와 개성의 자유로운 발휘를 주장한다. 한편 “문명개화라는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던 소세키는 …… ‘현대의 불안’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의 명령에 따라서 본연의 자기로 되돌아가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³¹⁾ ‘자기본위’든 ‘입인’이든 문명과 전통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자아정체성의 확립에 있으며, 정체성 확립의 조건으로 양자는 개성의 발휘와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죄의식, 근대 윤리적 주체의 조건

개성의 발휘와 그것을 위한 자유의 보장이 근대적 주체의 일차적 조건이라면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개인을 방종으로 이끌지 않을 제어장

29) 정선태, 위의 책, 150쪽.

30) 루쉰, 홍석표 역, <문화편지론>, 위의 책, 74쪽.

31) 히야마 히사오 저, 정선태 역, 위의 책, 113쪽.

치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본고는 그것을 근대적 주체가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인 윤리의식으로 설정한다. 소세키는 “최근에 자아 또는 자각이라는 개념이 주창되어 ‘아무리 방자한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대단히 의아스러운 점이 많다”³²⁾고 경계하면서 ‘도의적 개인주의’를 제시한다. 소세키가 말하는 ‘도의적 개인주의’에는 자기개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인의 개성도 존중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의무 사항 역시 인식해야 하고, 자기의 금력을 자랑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중히 여겨야 하는 세 가지 전제가 걸려 있다.³³⁾ 곧이어 소세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고쳐 말하면 적어도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양을 쌓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개성을 발전시킬 가치도 없고 권력을 사용할 가치도 없으며 금력을 사용할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바꿔 말하면 이 세 가지 사항을 자유롭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배후에 있어야 할 인격의 지배를 받을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인격이 없는 자가 무턱대고 개성을 발전시키려 한다면 타인을 방해하게 되고, 권력을 사용하려 하면 남용으로 흐르게 되고, 금력을 사용하려 하면 사회 부패를 초래합니다.³⁴⁾

상기 인용에서 소세키는 윤리적 수양이 부족한 사람, 다시 말해 자기점점이 부족한 사람의 권력과 금력은 타인에 대한 전제와 사회적 부패를 초래하기 쉬우며, 타인의 영혼까지 해치게 된다고 말한다. 이를 조금 확장하면 윤리적 주체의 존재로 인해 공동체의 존속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윤리는 예술적 숙련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예술이 인류에게 이로울 것인지 아니면 해로운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요구하기”³⁵⁾ 때문이다. 소세키가 근대 일본인이자 세계인으로 자부하는 방식 역시 윤리적 수양, 즉 그 자신이 “세계 공통으로 ‘정직’이라는 덕의(德義)를 중요시한다는 점”³⁶⁾을 인식하고 있

32)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62쪽.

33)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64쪽 참고.

34)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65쪽.

35) 게오르크 루카치 저, 반성완·심희섭 역, 《영혼과 형식》(서울: 심철당, 1988, 110쪽)

으며, 그와 같은 덕의의 구현을 위해 일조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것이 바로 소세키가 개인주의자이면서 일본주의자, 그리고 세계주의자가 되는 방식이다.³⁷⁾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소세키에게 자기 고유의 혈맥을 버리고 서구 근대 문명의 실질에는 눈을 감은 채 껍데기에 불과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서구인의 노예가 되려는 태도이다. 다시 말해 소세키에게 근대 일본인들은 전통의 노예였다가 다시 근대의 노예가 된 사람들로 비춰지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이 초래된 궁극적 원인은 근대적 주체가 갖춰야 할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윤리의식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루원의 경우에도 창작행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죄의식과도 같은 윤리관이었다. <答有恒先生>이라는 글에서 루원은 자신을 중국의 연희석상에 오르는 醉蝦라는 요리를 만드는 조수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창작이 “튼실하지만 불행한 청년들의 머리를 명석하게 하고 그 감각을 예민하게 함으로써 그가 만일 재앙을 만났을 때 몇 배의 고통을 겪게 하고 동시에 그를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생생한 고통을 감상하면서 특별한 향락을 얻게끔 한”³⁸⁾ 것은 아닌지 묻는다. 이와 같은 죄의식은 지속적으로 루원을 괴롭히면서 그의 글쓰기를 머뭇거리게 만든다. 첫 번째 雜文集인 《무덤》의 끝머리에 덧붙인 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3,4년 전의 일이 기억난다. 어느 한 학생이 와서 내 책을 사고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내 손에 내려놓았는데, 그 돈에는 아직 체온이 묻어 있었다. 이

36)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53쪽.

37) 소세키가 개인주의자이면서 일본주의자, 세계주의자가 되는 방식은 지극히 자기본위적인 개인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문학론>>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신민이라는 영광과 권리를 가진 나는 5천만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적어도 5천만 분의 1의 영광과 권리를 유지하고 싶다. 이 영광과 권리가 5천만 분의 1 이하로 줄어들 때, 나는 내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본국을 떠나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것을 5천만 분의 1로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내 미약한 의지가 아니다. 내 의지 이상의 의지이다. 내 의지 이상의 의지는 내 의지를 가지고서도 어찌할 수가 없다. 내 의지 이상의 의지는 나에게 명령해서 일본 신민됨의 영광과 권리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유쾌함도 피하지 말라고 한다.”(나쓰메 소세키 지음, 황지현 옮김, <<문학론>>서, 위의 책, 42쪽)

38) 루원, <答有恒先生>, 전집3권, 454쪽.

체온은 곧바로 내 마음에 각인되어, 지금도 글을 쓰려고 할 때면 항상 이러한 청년들을 독살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머뭇거리며 감히 붓을 대지 못하게 한다. 내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하게 되는 날은 아마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도리어 전혀 망설이지 않고 말을 해야 이러한 청년들에게 떳떳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지는 않았다.³⁹⁾

루쉰의 글은 인용과 같은 머뭇거림과 망설임, 즉 지속적인 자기점검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신의 가슴 깊이 각인된 청년의 체온과 그것이 강요하는 망설임, 망설이지 않고 말을 해야 그런 청년들에게 떳떳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루쉰은 자신의 글은 자신과 타인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처럼 시대의 폐단을 공격하는 글은 반드시 시대의 폐단과 함께 소멸되어야 한다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도 제거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남아 있는 한 바로 병균이 아직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⁰⁾ 이와 같은 루쉰의 원죄의식은 샌다이의전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어느 날 형성되지 않았을까 한다. 익히 알려진 ‘환동기사건’이 바로 그것인데, 이를 계기로 루쉰은 근대적 의학을 통한 신체의 치료에서 문예를 통한 정신의 개조로 전향한다. 그 전향의 계기는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개인적·민족적 치욕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루쉰이 그와 같은 치욕을 씻는 출발점은 치욕을 사실로서 인정한 후 치욕의 정화를 위해 불굴의 의지로 문예에 매진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문예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어떤 형식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것을 단순히 지식인의 지적 허영심 이상의 것으로 구체화하려면 문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필수불가결하다.

소세키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년 후 런던의 외로운 등불 아래에서 문학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한다. 다른 사람도 유치하다고 평가하고 그 자신도 유치하다고 생각한 그 신념은 “근본적으로 문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39) 루쉰, <寫在《墳》後面>, 전집1권, 285쪽.

40) 루쉰, <《熱風》題記>, 전집1권, 292쪽.

해석하려고 결심한” 것이다.⁴¹⁾ 모든 것이 금력에 의해 지배되는 고장에서 그의 유학은 일류 상인의 자제들이 누리는 태평스러운 유학과는 달랐다. 런던에서의 2년은 그에게는 가장 불쾌한 시간이었으며, 그는 영국 신사들 사이에서 늑대 무리에 갇힌 한 마리 삼살개처럼 애처롭게 생활했다.⁴²⁾ 더구나 서양의 문학 관념과 동양의 문학 관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거기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치욕이면서 사실로 받아들인다.⁴³⁾ 그리고 문학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자력으로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자신을 구할 방법이 없음을 자각한다.⁴⁴⁾ 이와 함께 그의 불안은 사라지고, “그때까지 안개 속에 갇혀 있던 것이 어떤 각도, 어떤 방향에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할지 명확”⁴⁵⁾해진다. 문학의 개념을 자력으로 만들어내고자 결심한 소세키나 문예를 통해 중국인의 정신 개조를 도모했던 루쉰 양자에게 그 계기는 치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으며, 양자는 치욕의 정화를 위한 방책으로 문학을 선택했다. 이제부터 양자에게 중요한 것은 문학이라는 형식에 담아낼 내용이다. 그것의 내용을 본고는 루쉰의 경우 ‘나래주의’를 통한 입인으로, 소세키의 경우에는 ‘자아분위’적인 ‘도의적 개인주의’로 본다.

휘충(霍冲)이라는 필명으로 1934년 6월 7일 《中華日報·動向》에 최초 발표된 <拿來主義>라는 글에서 루쉰은 “가져오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가져오는 것이 없으면 문예는 새로운 문예가 될 수 없다”⁴⁶⁾고 말한다. 그 글의 요지는 중국의 개항 이후 영국의 아편, 독일의 고철 덩어리 총포, 프랑스의 화장품, 미국의 영화 등은 모두 ‘보내온(送來)’ 것이지 중국의 필요에 따라 ‘가져온(拿來)’ 것이 아닌 관계로 각성한 젊은이들마저도 ‘보내온(送來)’ 것에 대해 두려움을 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 중국의 문화적 자부심에 취해 새로운 문물의 수용에 수동적인 근대 중국을 비판하면

41)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문학론》서>, 위의 책, 28쪽.

42)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문학론》서>, 위의 책, 32쪽 참고.

43)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문학론》서>, 위의 책, 27-28쪽 참고.

44)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51쪽 참고.

45)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55쪽.

46) 루쉰, <拿來主義>, 전집6권, 40쪽.

서, 근대문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1925년 2월 21일 《京報副刊》에 실린 <青年必讀書-應《京報副刊》的徵求>라는 글에서 루쉰은 “가능하면 중국책은 적게, 혹은 전혀 보지 않기를 바란다”⁴⁷⁾고 하면서, 중국책을 적게 읽어 생기는 문제는 글을 쓸 수 없다는 것뿐이며, 외국책은 퇴폐적이고 염세적이라더라도 살아 있는 사람의 퇴폐이자 염세라고 말한다. 또 1933년 9월 8일 《申報》《自由談》에 실린 <由龔而啞>라는 글에서는 “외국사조에 대한 소개와 세계명작의 번역은 정신의 양식을 운송하는 항로이다”⁴⁸⁾고 말한다. 루쉰이 외국의 문학과 문예이론 등을 번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 때문이다.

내가 외국에서 불을 훔친 것은 그 목적이 자기의 고기를 삶기 위해서다. 만약 그것으로 맛이 좋아지면 씹는 사람은 그만큼 이로운 것이며, 나로서도 육체의 낭비로 끝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출발점은 전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생각에서부터였으며, 거기에 뿌터부르주아적인 걸치레의 기분과 살며시 메스를 꺼내어 거꾸로 해부자의 심장을 찢어주는 복수의 기분이 섞여 있었다.⁴⁹⁾

루쉰의 나래주의가 흥미로운 것은 인용과 같은 자기희생과 함께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가 고찰하고자 하는 소세키의 ‘자기분위’와 연계시켜 약간의 추론을 가미하면, 루쉰의 나래주의 역시 순수한 자기분위적인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동유럽 약소국의 작품을 중국에 소개하고자 했던 루쉰의 초창기 문예활동과 연관시켜보면, 나래주의의 양상은 우선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처한 지식인의 사회적 윤리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루쉰의 나래주의가 지향하는 지점이 자기해부와 같은 철저한 희생을 통한 사회 비판으로서의 ‘개인주의적인 생각’이었다면, 소세키의 자기분위 역시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은 ‘도의적 개인주의’였다. 자기분위는 우선적으로 자신을 구하는 방법으로서의 문학관의 정립이었으며, “요컨

47) 루쉰, <青年必讀書-應《京報副刊》的徵求>, 전집3권, 12쪽.

48) 루쉰, <由龔而啞>, 전집5권, 278쪽.

49) 루쉰, <硬譯與文學的階級性>, 전집4권, 209쪽. 밑줄은 본고.

대 뜻도 모르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좋고, 혹은 기계적인 지식이라 표현해도 좋을 터인데 도저히 우리 소유, 혈육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서먹서먹한 것을 마치 제 것이라는 듯한 얼굴로 지껄이고 다니는”⁵⁰⁾ 타인본위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서양문명의 수용태도라고 할 수 있는 타인본위적 양상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자기본위는 서구 문명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근대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대비되는 듯하다. 문제는 양자의 수용 방식 모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자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전적인 부정(否定)으로 나아가기 쉬우며, 후자는 아큐(阿Q)식의 정신승리법에 빠질 우려가 크다. 아래 인용은 루원이 비판하고 있는 중국식 나래주의의 면모이다.

새롭게 일어난 사상은 “이단”이니 반드시 섬멸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분투한 끝에 스스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그것이 원래 “성인의 가르침과 근원이 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찾아낸다. 외래의 사물은 모두 “夷를 이용하여 夏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런 夷가 중화에 들어와서 주인이 된다면 고증을 통해 교정하고는 본래 “夷”도 여전히 황제의 자손이라고 해버리는 것이다.⁵¹⁾

루원은 이와 같은 중국식 나래주의는 지배자의 논리에 부합할 뿐이며, 역설적으로 중국 문명의 허울을 스스로 밝혀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소세키에게 일본의 개화, 즉 외래 문물의 수용은 “착실하게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얕!’ 하고 기합을 넣은 뒤 강충강충 뛰어가는 모습”으로, “개화의 모든 계단을 차례차례 밟고 지나갈 여유가 없으니 되도록 큰바늘로 들판 들판 꿰매고 지나가는 꼴”로 비친다.⁵²⁾ 그 원인을 소세키는 “지금까지 내발적으로 전개되어온 것이 갑자기 자기본위의 능력을 잃고 외부의 힘에 눌리고 눌러서 좋은 싫든 간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듯한 모양이 된”⁵³⁾ 때문이

50)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52쪽.

51) 루원, <古書與白話>, 전집3권, 213쪽.

52)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현대 일본의 개화>, 위의 책, 98쪽.

53)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현대 일본의 개화>, 위의 책, 97쪽.

라고 말한다. 그가 파악한 개화의 형태는 “무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소극적인 활력 절약과 도덕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력 소모가 서로 나란히 진행, 서로 얽히고설키며 변화해가서”⁵⁴⁾ 성립된다. 간단히 근대 물질문명의 발전은 활력 절약의 결과물로 귀찮음을 피하고 싶다는 교활함에서 발달한 편법이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개화는 물질적 차원에서 생활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생존의 고통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생존경쟁에서 야기되는 불안은 가중되었을지도 모른다.⁵⁵⁾ 더구나 “지금의 일본을 국가주의가 아니면 자립할 수 없는 것처럼 선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주의 요소를 유린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할 것처럼 주창하는 자도 적지 않은”⁵⁶⁾ 상황에서 국가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일본인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후발 근대국가 일본의 입장에서 ‘脫亞入歐’는 지상 최대의 과제였으며, 전근대 국가 중국의 지상 과제는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의 실현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나 중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물질과 다수, 혹은 국가주의로 상징되는 집단의 윤리였다. 루쉰과 소세키가 의문을 품은 점이 이 부분이다. 과연 국가적 도덕이라는 형태가 개인적 도덕과 비교하여 등급이 높을까?⁵⁷⁾ 도덕의 본질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 권력층과 거기에 기생하는 지식인이 만들어낸 관념체계는 아닐까?⁵⁸⁾ 이와 같은 의문점들의 해결 없이 강요되는 국가적 도덕은 개인을 공허하게 만들 뿐이다. 궁극적으로 양자의 문학은 현대인이 처한 그와 같은 불안과 고통을 형상화함으로써 근대문명과 국가적 도덕의 이면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물질과 다수, 국가적 도덕과 같은 다수가 공인하는 것에 맞서 연약한 개인의 가치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양자의 문학은 그 어떤 것보다 윤리적이어야 한다. “윤리 면에서 저급한 가치를 지닌 문예는 결

54)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현대 일본의 개화>, 위의 책, 88쪽.

55)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현대 일본의 개화>, 위의 책, 93쪽 참고.

56)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70쪽.

57)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위의 책, 74쪽 참고.

58) 루쉰, <在現代中國의孔夫子>, 전집6권, 316쪽 참고.

코 우리 내심이 원하는 도덕과 괴리되어 변영할 수 없기”⁵⁹⁾ 때문이다.

4. 나오며

소세키의 ‘자기본위’와 루쉰의 ‘나래주의’의 공통 목표는 ‘입인’이다. 입인의 선결 조건은 개성의 발휘를 위한 자유이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점점의 윤리를 필요로 한다. 본고는 ‘자기본위’와 ‘나래주의’, ‘입인’과 같은 어휘에서 양자의 문학적 형식의 완성성을 본다. 전통에 대해 미련을 가졌던 후발 근대국가의 지식인 소세키든, 전통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던 전근대 국가의 지식인 루쉰이든 양자의 문학적 형식을 완성시킨 키워드는 ‘자기본위’와 ‘나래주의’를 통한 ‘입인’에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는 자신과 대상세계에 대한 인식과 문학적 전달이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음악과 악보의 관계에서처럼 소리를 악보 속에 억지로 넣어서 소리 자체가 아무리 자유롭게 발현되어도 그 틀을 거역하지 않고 행운유수와 같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종의 틀을 사회에 부여해 그 틀을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따르게 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⁶⁰⁾를 성찰하는 소세키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틀이라는 형식에 담긴 내용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하기 위해 양자는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창작에 임했을 것이다.⁶¹⁾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양자에 대한 대다수 비교 연구는 ‘자기본위’와 ‘입인’으로부터 새로운 근대의 모델을 발굴하고자 한다. 양자의 문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앞서 기술한 형식과 내용의 일치, 혹은 완성성에 있을 것

59)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문예와 도덕>, 위의 책, 165쪽.

60)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내용과 형식>, 위의 책, 134쪽.

61) 소세키의 경우 39세가 되던 1905년에야 창작을 시작했으며, 루쉰의 창작생애는 <광인일기>를 발표 기준으로 삼으면 37세에 시작되었다.

이다. 역으로 소세키가 일본의 외발적(外發的) 개화에 반감을 가지거나, 루선이 중국 근대화론자들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형식과 내용에서 불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점은 자기중심주의와도 같은 양자의 문학적 형식과 내용이 강한 문명비판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개성을 열정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해소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며, 실제로 그들의 문학은 개성의 발휘를 통해 근대 일본인과 중국인이 직면한 존재론적 고독과 불안에 치유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 參考文獻 >

- 魯迅, 《魯迅全集》 1, 3, 4, 5, 6권,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년 제1版.
- 게오르크 루카치 저, 반성완·심희섭 역, 《영혼과 형식》, 서울: 심설당, 1988.
- 히야마 히사오 저, 정선택 역, 《동양적 근대의 창출 — 루선과 소세키》, 서울: 소명출판, 2000.
- 루선, 홍석표 역, 《무덤》, 서울: 선학사, 2001.
- 정선택, 《심연을 탐사하는 고래의 눈》, 서울: 소명출판, 2003.
- 나쓰메 소세키, 황지현 옮김, 《나쓰메 소세키 문학예술론》, 서울: 소명출판, 2004.
- 伊藤虎丸, 孫猛等譯, 《魯迅, 創造社與日本文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나쓰메 소세키, 김정훈 옮김, 《나의 개인주의 외》, 서울: 책세상, 2011년 초판3쇄.
- 蘇文倩, <覺醒, 掙扎與追求 - 魯迅與夏目漱石筆下的知識分子形象比較>, 《中國現代文學研究總刊》, 1991년 제1기.
- 由同來, <略論《文藝的哲學基礎》對《摩羅詩力說》文學觀之影響>, 《日語學習與研究》, 2004년 제2기, 총 제117기.
- 陳占彪, 陳占宏, <魯迅與夏目漱石寫作的心理背景>, 《南都學壇》 제25권 제6기, 2005년 11월.
- 鄧傳俊, <魯迅和夏目漱石的個人主義>, 《山東社會科學》, 2007년 제8기, 총 제144기.
- 안영희, <동아시아의 근대와 근대 지식인 — 나쓰메 소세키, 루선, 이광수>, 일본어문학회, 《일본어문학》 제71집, 2015.

전수진 · 이경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와 노신(魯迅)의 근대문화 수용에 대한 의식 비교>, 한국일본근대학회, 《日本近代學研究》 제56집, 2017.

< Abstract >

A Research for Lu Xun(魯迅) & Natsume Soseki(夏目漱石)'s Exploration of the Modern Subjects

Ko, Jumb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attern of establishing a modern subject through Natsume Soseki, a intellectual of late modern country, and Lu Xun, a intellectual of premodern country. To this end, this paper discusses the aspects of Soseki's 'Self-Hood(自己本位)' and Lu Xun's 'Nalaizhuyi(拿來主義)'. The Soseki's 'Self-Hood' is not a selfish individualism but a 'moral individualism', and The Lu Xun's 'Nalaizhuyi' emphasizes subjective activeness in the acceptance of foreign cultures. Through the 'Self-Hood', Soseki reconsiders the value of traditions forgotten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emphasizes the reflective introduction of foreign cultures. The 'Self-Hood' and The 'Nalaizhuyi' emphasize the subject's activeness and emphasize the value of freedom in which the subject's activeness is expressed. For both Soseki and Lu Xun, freedom for the exercise of personality is the basic condition of modern subjects. Another reason why both emphasize the exercise of personality and freedom is the witness of the individual's anxiety and solitude fac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China and Japan only differed in the pace of modernization, and both were forced to throw away familiar ones and accept unfamiliar on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modernization of the two countries did not proceed voluntarily, but was counter-forced by external forces.

On the other hand, since freedom for the exercise of personality may infringe

the freedom of others, both require an ethic of self-check. This emphasis on the morality of literary art is also a key mechanism for the completion of both literary forms and contents. Both literary forms and contents, similar to self-centeredness, have a strong social color. They hoped that exercising their personality enthusiastically would ultimately break down the barriers between people, and in fact their literature had the effect of healing individualistic loneliness and anxiety faced by modern Japanese and Chinese through the exercise of personality.

Key words: Lu Xun(魯迅), Natsume Soseki(夏目漱石), Self-Hood, Nalaizhuyi(拿來主義), Personality, Freedom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4. 10	2020. 05. 11 -05. 31	2020. 05. 26	2020. 06. 01	2020. 06. 30